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각국 입장과 향후 대응

美 북핵 테러단체 유입 차단 주력

유엔 안보리가 14일 핵실험과 관련,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강도 높은 경제·외교적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결의안 통과시까지 진통이 있었던 만큼 제재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량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각국의 '수위 조절'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한·미, 미·중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의안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입장을 정리한다.

존 볼튼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왕광야 중국 대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15일 유엔에서 "북한 핵실험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확한 위협"이라고 각각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PSI 강화… 금융·화물 봉쇄에 초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 결의에 대해 "안보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결의 가운데 최강의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군사조치도 취할 수 있는 조문을 넣으려 했던 것은 예상대로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불발했지만, 어차피 북한의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자세가 이번 결의만으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후속 결의용으로 예고해두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억지한다는 최초 목표는 실패했지만, 안보리 결의와 별도의 확산방지구상(PSI)의 대북 활동을 강화해 병행함으로써,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와 물질을 테러단체 등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겠다는 새로운 목표도 세웠다.

미국은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해 실시할 선박검사에 대해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토머스 쉬퍼 주일 대사는 13일 저녁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과 만나 "일본이 헌법의 범위 내에서 의미있는 공헌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日, 결의 적극 이행… 선박검사 검토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했던 만큼 결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일본 정부가 유엔 결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지금의 태도를 바꾸도록 하기 위해 당연히 힘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며 결의 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5일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추가제재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또 북한 선박에 대한 미군의 검사시 해상자위대의 선제 무기사용을 가능토록 하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집권 자민당은 대북 제재결의안에 포함된 북한선박에 대한 검사시 해상자위대가 직접 검사에 나서거나 후방에서 미군 등에 협력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 중이다. 특히 해상자위대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고사격도 가능케 한다는 구상이다.

中, 무력 제재반대… 평화적 해결 기대

중국은 14일 왕광야 유엔주재 대사의 발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촉진,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평화·안정 수호라는 대세에 따라 중국 측은 안보리가 마련한 단호하고 적절한 반응에 찬성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왕 대사는 이어 "북한의 핵실험이 부정적 사태발전이기는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안정 수호, 외교적 수단에 의한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중국의 정책은 어떤 변화도 없다"면서 "중국은 여전히 6자회담을 관련 문제 해결의 현실적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외교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제적 수단을 동원, 상황 변화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 또는 압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왕 대사는 무력에 의한 문제 해결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관련 국가들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핵확산 반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해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거나 통제 불능의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 추가적 도발행위 억제 전략적 접근을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무력 제재와 같은 극단적인 대북 압박조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번 결의안에 반영했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14일 "유엔 결의안에는 무력사용에 대한 '암시' 조차 담겨서는 안된다"면서 "국제적 제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바노프 부총리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데 동의하면 안보리 제재 결의안도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북핵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러시아가 북핵 실험 후에도 여전히 6자회담을 외치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론 6자회담 붕괴가 러시아 측의 북핵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크게 축소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오히려 북한의 핵실험 규모에 대해 미국 등 다른 당사국들과 달리 상당한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나아가 북한이 핵능력을 입증한 상황에서 대북 압박을 가중하는데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등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美, 동해 상공서 방사능 탐지

한국에 통보…"추가 핵실험 징후 포착 안돼"

북한 핵실험에 따른 방사능 물질이 탐지돼 핵실험 사실이 확인됐다.

정보 당국자는 14일 "오늘 오전 미측으로부터 '핵실험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의 대기를 분석한 결과 방사능 물질을 탐지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미측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으로 사실상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측은 동해 상공에서 방사능 물질을 탐지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동해상의 대기와 동해 바닷물에서 방사능 물질을 찾아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미세한 방사능량을 추출해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동해 상공에 떠다니는 방사능 물질을 WC-135C를 통해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후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핵실험 감시용 특수정찰기인 WC-135C를 출동시켜 함경북도 풍계리 등 핵실험 의심시설 주변을 정밀 정찰해왔다.

정보당국자는 "미측은 방사능 물질 탐지 방식이나 정확한 방사능 검출량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함북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핵실험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차 핵실험 여부와 관련, 정보당국자는 "핵실험이 이뤄질 것이라는 징후는 아직 포착하지 못했다"며 "대북 정보감시 자산을 통해 정밀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기지인 함북 화대군과 깃대령에서도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中, 북한에 사기당했다"

"대북 첩보망 와해 핵개발 몰라"

홍콩 주간지 아주주간 소개

북한이 핵실험 강행을 앞두고 중국까지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국은 또 북한의 핵무기가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지는 않을까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 최신호는 15일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받은 엄청난 충격을 전하며 중국 지도부의 핵사태 대응에 대한 막전막후를 소개했다. 다음은 기사 내용.

안드레이 카를로프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는 핵실험 실시 2시간 전 핵실험 실시사실과 배경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중국은 핵실험 단행 20분 전에야 북한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아야 했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설) 때 핵보유 선언을 한데 이어 이번 핵실험도 '조화사회' 구축을 논의하던 중국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6기 6중전회)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 중국은 주목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 경축행사에 '악의에 찬 선물'을 보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고위층은 북한이 중국을 '봉'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 북한 특수부대는 마구 북-중 국경을 넘어와 중국 영토에서 탈북자들을 체포해가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엔 중국에 엄청난 자금과 물자를 터무니 없이 요구한다.

중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고 북한의 핵개발 진척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북한의 핵개발이 표면적으로 미국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어느 때라도 총구를 중국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을 중국은 내심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 美 책임 가장 커" 43%

KBS 라디오 설문

성인 43%가 북한 핵실험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나라로 미국을 꼽았다.

KBS 제1라디오 '김방희 지승현의 시사플러스'가 11~12일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나라를 묻는 질문에 미국이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

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삼능건설 주식회사("갑")와 삼능주택 주식회사("을")는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에서 규정하는 합병절차에 따라 "갑"이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합병당사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16일

합병법인 "갑" 삼능건설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00-3
대표이사 이 광 제

피합병법인 "을" 삼능주택주식회사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3-15
대표이사 김 동 창

한정승인공고

망 김석준(501207-1567513)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느단 315
공 고 인:최형내, 김한수, 김수정, 김수신, 김대수
한정승인수리일:2006. 9. 27
공고기간:2006. 10. 16~2006. 12. 15
연 락 처:전남 신안군 하의면 용곡리 244-9 최형내 (☎ 061-275-4170)

건물임대

1층	225평
2층	225평
3층	225평
4층	135평

◉대지 720평 ◉주차 80대
◉하남무진로 80m 도로변
◉한국농촌공사 옆 건물
☎017-620-2311
010-2255-2600

무담보 무보증

가계·당좌·어음수표·차량담보
연락처 010-4408-8911

면책결정 공고

사 건 2005하면1015 면책 (2005하단445)
파산자 김미라 (721105-*******) 주소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107-6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10월 13일
광주지방법원 관사 강 주 헌

면책결정 공고

사 건 2005하면1202 면책 (2005하단1156)
파산자 박윤주 (560818-*******) 주소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165-3 301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10월 13일
광주지방법원 관사 강 주 헌

면책결정 공고

사 건 2005하면1203 면책 (2005하단1157)
파산자 박윤주 (630228-*******) 주소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165-3 301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10월 13일
광주지방법원 관사 강 주 헌

면책결정 공고

사 건 2005하면1250 면책 (2005하단1198)
파산자 김점엽 (570421-*******) 주소 여수시 여서동 479 부영 아파트 604동 904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10월 13일
광주지방법원 관사 강 주 헌

면책결정 공고

사 건 2005하면1256 면책 (2005하단1204)
파산자 이봉균 (630624-*******) 주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벽리리 219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10월 13일
광주지방법원 관사 강 주 헌

면책결정 공고

사 건 2006하면84 면책 (2006하단79)
파산자 박재문 (670329-*******) 주소 순천시 풍덕동 1262-6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10월 13일
광주지방법원 관사 강 주 헌

면책결정 공고

사 건 2006하면85 면책 (2006하단80)
파산자 이향열 (730112-*******) 주소 순천시 풍덕동 1262-6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10월 13일
광주지방법원 관사 강 주 헌

면책결정 공고

사 건 2006하면169 면책 (2006하단161)
파산자 김행심 (741015-*******) 주소 여수시 신월동 60 금호아파트 5동 904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10월 13일
광주지방법원 관사 강 주 헌

면책결정 공고

사 건 2006하면209 면책 (2006하단203)
파산자 김미아 (701023-*******) 주소 광주 북구 일곡동 849-2 청솔아파트 101-105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10월 13일
광주지방법원 관사 강 주 헌

면책결정 공고

사 건 2006하면257 면책 (2006하단249)
파산자 범진갑 (540513-*******) 주소 광주 북구 생용동 628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10월 13일
광주지방법원 관사 강 주 헌

면책결정 공고

사 건 2006하면376 면책 (2006하단369)
파산자 박누리 (800213-*******) 주소 광주남구 주월동 1212-4 요나연립 나동 103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10월 13일
광주지방법원 관사 강 주 헌

면책결정 공고

사 건 2006하면509 면책 (2006하단508)
파산자 류환명 (660307-*******) 주소 광주 북구 오치동 975-31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10월 13일
광주지방법원 관사 강 주 헌

산행안내

▲발성산악회 정흥~관산 천관산 억새축제 10월17일(화) 07시40분 풍암동 대운도타파 문예회관 후문 앞 출발 ※다음카페 '옥성산악' T.011-605-3477

▲광주영천산악회 오메산 노인봉 소금강단풍산행 10월17일(화) 05시 챔피언중앙예식장 앞 출발 ※다음카페 '광주영천산악회' T.011-228-2677

▲산수원산악회 지리산산행 10월18일(수) 08시 제일중 통일회관앞 출발 ※회비:1만원 선상지참 T.062-224-4901, 010-4607-1240

▲가고파산악회 설악산 1박2일산행 10월18일(수) 08시 광주역 출발 ※회비:80,000원 (1박숙박) ※참석자명단 T.011-605-5034, 011-601-8238

▲아대로산악회 고향 구월봉 비학산 천문지산행 10월18일(수) 07시30분 제일아파트앞 영아병원옆, 문아회관 앞 출발 T.011-649-4576, 011-605-6361

▲광주한국산악회 오메산 노인봉 소금강제주 민속촌산행 10월19일(목) 06시 학동육교 앞 출발 ※여행비:만 T.011-615-2279 T.011-615-2279

▲광목산악회 공산 동대봉 둔덕산 10월19일(목) 07시30분 대인광장 선광회관앞 출발 T.011-9614-2729

▲올림산악회 설악산 무박산행(오색온천~대청봉~희운각~10월19일(목) 21:00시 상무회관앞 출발 T.011-602-3515

▲광주복요산악회 진동산,두타산강원도 정선,삼척동화 1박2일산행 10월19일(목) 07시 광주역 앞 출발 T.011-601-6984, 011-441-6845

▲광주자연보존산악회 중국 황산 3박4일산행 10월19일(목)~10월22일(일) 11시30분 광주종합 출발 ※cafe.daum.net/JAYNSAN T.016-874-2900

▲필성산악회 지리도관광 한라산등반 1박2일) 10월20일(금) 07시 백두로타리 옥사랑앞 출발 ※다음카페 '필성관광' ※회비:120,000원(보포함여드렁박) T.011-605-3477

▲예향토요산악회 경남 창평 홍룡산 억새산행 10월21일(토) 07시30분 광주역 큰애회관후문 집합,출발 ※다음카페 '예향토요산악회' T.019-392-4277

▲광주일프스산악회 설악산 대청봉단풍산행 10월21일(토) 7:00시 대인광장 선광회관앞 무등두산관광안출발 T.267-5307, 010-4616-1460

▲광주메아리산악회 설악산 무박2일산행 10월21일(토) 06시30분 신사천앞 출발 T.011-649-4953

▲솔잎산악회 대승종고원 내장산 1박2일산행 10월21일(토) 06시 광주역출발 T.011-608-7627, 011-605-5034

▲비두리산악회 설악산 대청봉무박산행 10월21일(토) 22:00시 광주역 출발 ※다음카페 '비두리' ※선착순예약마감 T.011-640-0671, 011-9614-0879

▲광주토요산악회 문경 대야봉(희놀재~신선봉) 10월21일(토) 06시30분 광주역(문예회관후문)집합,출발 ※다음카페 '광주토요산악회' T.011-602-3515

▲광주한길산악회 장흥 천관산 주몽촬영지 관광 10월22일(일) 07시 광주역출발 T.222-3253, 010-7619-0559

▲나사모산우회 지리산파아날~뱀사골 10월22일(일) 07시 광주역광장 출발 http://cafe.daum.net/gamsamo T.062-525-7223

▲광주원산우회 지리산 삼도봉(아고산)행 10월22일(일) 07시 염주체육관(문예회관)앞 집결,출발 T.011-626-1977, 011-942-9338

▲해오름산악회 사량도 지리산 10월22일(일) 08시 대인광장 선광회관앞 출발 T.062-392-9491, 011-601-8815

▲요산회 지리산(바래봉) 10월22일(일) 06시 광주역출발 T.016-611-1509

▲청운산악회 서남도 팀도 공뜨사공대 수해산 10월22일(일) 05시30분 바르네나타 뷰성관앞 출발 ※다음카페 '별성관광' ※회비:65,000원(노시락지참) T.011-605-3477

▲지인과산 지리산 바솜능선(뱀골~칼바위~추성고개 10월22일(일) 06시30분 대인동 산악회 차장 출발 http://cafe.daum.net/kksone T.011-607-3700

▲광주산가족 지리 국수산~망덕봉 10월22일(일) 06시30분 대인광장(문화홀옆)주출발 T.019-499-1405

▲광주태일산악회 지리산 파아날(중산리행 10월22일(일) 07시 구한남도청앞 출발 ※다음카페 '광주태일산악회' T.016-639-3000

▲삼라산악회 한천 피해산, 태인사 낙엽체험행 10월22일(일) 08시8분 두암동88번지스포츠장앞 출발 T.011-644-2730

▲광주용봉산악회 설악산 대청봉 10월27일(금) 21:00시 비엔날레입구앞 출발 T.010-8678-0650

▲산과희망 제주도 한라산 단풍산행회원모집 1박2일 10월28일(토) 07시 광주역 앞 출발 ※다음카페 '산과희망' T.011-619-4609

▲광주산사랑토요산악회 화천 가아산 공룡능선 단풍산행 10월28일(토) 08시 무등경기장후문 출발 (25석 대두전천량오함) ※다음카페 '광주산사랑토요산악회' T.010-7171-2682

▲산과희망 제주도 한라산 단풍산행회원모집 1박2일 10월28일(토) 07시 광주역앞 출발 ※다음카페 '산과희망' T.011-619-4609

▲원광산악회 제주 한라산 1박2일 10월28일(토) 05시30분 구드힐(삼무관)출발 ※9월20일까지 선착순 접수 T.011-9624-0508

▲상무관광산악회 대마도산행 및 관광 복요일을 발행합니, 무담일출봉(1박2일) 진입장식사 인정부 포함 ※출발:30일전 예약필수사항, 여권필수 T.062-361-1900

▲모두투어(주) 동일 중국 황산~천도주 3박4일 11월매주 수,토) 공항대합합실 출발 ※다음카페:광주산사부달팀 T.655-0079, 011-612-1770

▲광주산사랑토요산악회 제주도 한라산 단풍특집 제 1박2일 11월4일(토) 07시 무등경기장 주근 수영장앞 출발 ※다음카페 '광주산사랑' 모집 T.010-7171-2682